



원전기자재 수출사업설명회 국내 최초 개최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원전기자재 수출사업설명회가 국내 처음으로 2월 22일 더케이호텔서울 한강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코리아뉴클리어파트너스(KNP)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60여개 관련 기업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민계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밑받침인 동시에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원자력산업계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국내 원자력산업의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한수원 동반성장팀은 인력/경영 지원, 자금 지원, 품질/기술 지원, 판로 지원의 4가지 주요 원자력계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분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유자격 공급자 등록지원 사업과 ASME, KEPIC 등 주요 인증 취득/갱신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수원 원전수출처는 세계 원전 플랜트 시장 분석, 주요 원전 수출국 및 사업자 분석을 통하여 해외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코리아뉴클리어파트너스(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 수출 기반구축 사업에 따른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주요 제품에 대한 품질등급, 적용 분야, 기술적 특성 등을

목록화(DB)하는 조사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조사 내용을 활용한 해외 전시회 참여 및 홍보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수출상담회에는 27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각 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및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정보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산업회와의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코리아누클리어파트너스(주)는 향후 최대 3회의 수출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판 원자력연감 편집실무위원회의 개최



2017년판 원자력연감 편집실무위원회의

한국원자력산업회에서는 「2017년판 원자력연감」 발간을 위한 편집실무위원회의를 2월 3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원자력 산업체, 연구기관, 협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편집실무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판 원자력연감」 발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내용 구성 및 수록 범위, 실무 집필진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 하였다.

한국원산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 집필진을 선정,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금년 5월경에 원자력연감을 발간할 계획이다. 🍵